

한국 최초 한-티베트 교류의 공간인 한국티베트센터가 20일경 문을 연다.

연건평 400평, 지상 5층 건물의 4,5층을 한 개의 층으로 만들어 법당을 만들고 티베트에서 모셔온 석가모니불을 봉안하게 되는 부산광역시(주지 초법)는 한국티베트센터의 공간을 겸하게 되며, 한국과 티베트의 문화와 불교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한국과 티베트가 막연한 호기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생긴 셈이다.



한국티베트센터는 티베트 전통양식으로 건립되며, 수행과 공부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초법 스님이 건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인에 기초수행법·언어 등 교육  
4~5층에 법당... 티베트 불상 봉안  
불교서적·사전편찬·불경번역사업

2000년 광성사의 나이판 다청년회(지도법사 김도완)에서 기존의사를 밝힌 이후 1년 전부터 진행되어온 한국티베트센터 불사는 4월 20일쯤 마무리되며 별도의 개원식이 없이 조용히 문을 연다. 6명의 운영위원에 의해 사찰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는 한국티베트센터는 한국사람들에겐 티베트 기초수행, 티베트어 등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면서

## 한국·티베트센터 20일째 개원

부산광역시 지상 5층 건물... 양국불교교류 중심 역할

티베트 스님들에겐 한국의 문화와 불교에 대해 배울 수 있게 개방돼, 수행과 불교문화 교류, 협력을 이끌어내게 된다. 원활한 교류를 위해 포탈라출판사를 등록, 티베트 관련 서적출판, 티베트어·한국어 사전, 한국어·티베트어사전 출간

을 비롯 불경 번역에도 주력하게 된다. 초법 스님은 현재 티베트·한국어사전 작업을 진행중이다. 특정 프로그램을 미리 짜놓지 않고 한사람 한사람의 특성에 맞는 수행지도도 하겠다는 것도 티베트 사찰의 특징 중 하나.

을 봉안하고 티베트 전통 양식으로 복장 봉안과 함께 점안식을 봉행한 후 티베트 스님들이 내부, 외부 단청 불사와 행화를 마무리하면 티베트 전통 양식의 사찰로 제 모습을 갖춘다.

5월말이나 6월초쯤 티베트 스님을 모시고 높이 3m 크기의 석가모니불과 천수천안 관세음보살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 화엄경 무차법회 석달간 열어

동화사, 5월 17~8월 12일 무비 스님 등 논강 후 토론도

5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동화사는 매주 토요일 화엄경을 공부하는 사부대중의 법석을 마련한다.

지난해 백고화 법회를 개최했던 동화사가 이번엔 화엄경을 대주제로 난상토론을 벌이는 화엄논강을 연다.

5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3개월간 설법전에서 열리는 화엄논강에는 스님들뿐만 아니라 재가자에게도 개방해 사부대중 모두가 참여하는 무차법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열리게 될 화엄논강은 모두 13회에 걸쳐 무비 스님, 각 성 스님, 종법 스님 등을 논주로 화엄경 전반에 대해 테마강의이후 대학교수와 스님들로 이루어진 10여명의 토론자들이 대중들과 함께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엄논강은 5월 17일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스님의 '화엄경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24일 종법스님의 '화엄경의 성립', 31일 통광스님의 '화엄경의 전개'를 비롯 8월 9일

도법스님의 '화엄경과 현실'을 마지막으로 12일 회향한다.

동화사 주지 지성스님은 "불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해 시대정신과 실천의 논리를 화엄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며 "화엄사찰인 동화사의 사상적 기반을 구축하고 화엄경의 대중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동화사는 화엄논강 이후 법화경, 열반경, 능엄경 등을 주제로 계속해서 무차논강을 열 계획이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동화사 자원봉사자 발대식에서 단장 종상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동화사 등 5개 교구 본사  
지하철참사 합동위령제

동화사, 불국사, 직지사, 은해사, 고운사 등 지역 5개 교구본사가 대구지하철 참사 합동위령제를 봉행한다.

대구경북 5개 교구본사는 대구지하철 사고 희생자들의 영혼을 천도하는 합동 위령대재를 23일 오전 10시 중앙로역 일원에서 봉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지하철 참사 49일째인 7일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49재가 대구지역 사찰에서 일제히 열렸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는 7일 희생자 유가족 200여명과 함께 4층 법당에서 49재를 봉행했다.

팔공산 동화사도 이날 통일대불전에서 49재를 지냈고, 지장선원에 서도 합동 천도제 회향식을 가졌다.

박원구 기자

## 불국사 자원봉사단 발대식

경주 불국사는 교구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지난 8일 오후 2시 경내 광장에서 개최했다.

봉사단기, 회원증서 전달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단장 종상 스님의 인사말과 성타스님의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신도 대표가 무주상 봉사를 통해 사회의 어두움을 광명으로 바꿀 것을 서원하는 봉사단원 선서로 이어졌다.

불국사 자원봉사단장 종상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국사 자원봉사단은 어려움이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달려가 법사, 무의시를 베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원 420여명으로 구성된 불국사 자원봉사단은 앞으로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무료급식소 운영,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자원봉사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박원구 기자

## 용흥사 삼불회괘불탱 등 문화재 3건 보물로 지정

문화재청은 10일 '용흥사 삼불회괘불탱(제1374호)', '통도사 금동천문도(제1373호)'와, '인중근 의사유목(제569-25호)' 등 문화재를 보물로 지정했다.

용흥사 삼불회괘불탱은 길이가 10m가 넘는 대형 괘불로 17세기 이후 유행한 군집도 형식의 전형을 보여준다. 문화재청은 서울대 규장각 소장 '삼국유사' 권 제1-5를 보물

에서 국보로 승격 됐고,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내 발견 유물과 송광사 소장 티베트문 법자 및 불갑사 소장 목조삼세불좌상 등 3건은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여수령 기자

## 경주서 15번째 총담재

신라 향가 '찬기과랑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총담스님을 기리는 '총담재'가 5일 경주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사진전 및 전통문화 체험 한마당과 함께 차 도구, 다식, 녹차 등을 전시,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축제로 한 단계 발전되었다는 평이다.

박원구 기자

## 통도사, 만다라괘불 5월말 일반공개

폭 7.32m 높이 11m 규모... 막바지 작업 한창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와 부산아시아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제작중인 '월드컵만다라 괘불'의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5월말쯤 일반인에게 선보일 예정

인 월드컵만다라 괘불은 월드컵과 아시아안게임이 열린 2002년을 상징해 모두 2천2백로 구성, 폭 7.32m, 높이 11m 규모로 지구촌의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괘불에는 유럽·아시아·

아프리카·아메리카·오스트레일리아 등 5개 대륙을 상징하는 불교의 오여래와 중앙에는 세계의 융화를 표현하는 비로자나불이 위치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하단에는 세계인들의 구원과 안녕을 기원하는 관음 32응신으로 월드컵 32개국을 표현했으며 괘불의 높이 11m는 축구 경기에 참가하는 11명, 화폭 7.32m는 골포스트의 너비를 가리키고 있다.

천미희 기자

## 연등시연회 열어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청년회(회장 박석규)는 지난 5일 대구 국제보상공원에서 제5회 연등시연회를 열었다.

부처님오신날 불축행사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되는 이번 연등시연회는 참가한 시민과 어린이들이 오색 연등을 직접 만들어 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연등시연회는 '지구생명 살리기' 캠페인도 열어 개발로 인한 지구환경파괴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박원구 기자



용흥사 삼불회괘불탱.



영남불교대학 교향악단이 9일 대구시민회관에서 첫공연을 열고 불경과 현대음악이 결합한 '칸타타 금강경'을 선보였다.

## 테너·바리톤·오케스트라 '금강경' 합주

영남불교대학 교향악단 창단 첫공연

9일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는 교향악단의 웅장한 가락에 맞춰 테너와 바리톤 성악가의 목소리로 불교경전 '칸타타 금강경'이 연주됐다.

영남불교대학 교향악단 창단 첫 연주는 교계 최초로 조계종단의 소의경전인 '칸타타 금강경'을 교향악으로 담아낸 '칸타타 금강경'을 선보여 1,600여 청중들의 관심을 끌었다.

'칸타타 금강경'은 한문으로 된 '금강경 약찬'을 현대적 내용으로 풀어 영남불교대학 학생스님이 노랫말을 쓰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등의 찬불가를 작곡한 영남불교대학 교향악단 이달철 단장이 곡을 만들었다.

특히 이번 연주회는 대구 지하철 사고 희생자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자리로 마련돼 더욱 뜻깊었다.

박원구 기자

## 광명실상 성취기도법을 알리며...

부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신 것은 물질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생명을 위함입니다.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체(마음)를 위함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 진정한 불자(佛子: 부처님의 자식)입니다. 마음의 그림자라는 몸은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업, 병, 약, 고통, 재난, 불행, 죽음도 다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마음이 '운명'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운명과 마음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고 운명은 '마음'의 자취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이치를 깨달으면 뜻하는 대로 자기 운명을 지배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실상은 '부처님의 자식'이고 '영원한 생명'이며 '실상'이란 원만 '하모니'이 이것의 향상됨이 없이 생멸(生滅)하는 육체로서 대표시킬 수는 없습니다. 생멸(生滅)하여 항상 됨이 없는(無常) 온갖 것은 실체가 아니며 한낱 신념의 반영에 불과합니다. 이 진리를 믿는 불자님은 무한생명(無限生命)을 얻어서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미숙하고 불확실한 인생의 역경이 부처님과의 인연을 소중히 하는데서 확실하고 생명력 있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라 여기게 됩니다. 행복·희망·변영·건강·성공의 근원은 부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소중히 여겨 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금이 없고, 능력, 인맥, 학력, 가문, 문벌도 없으며 더욱 생명까지도 없었던 불자들이 오늘날까지 살았으며 살아나갈 수가 있었던 것도 모두가 부처님과의 만남에 의지한 덕분이라 생각하며 부처님 은혜의 일념뿐입니다.



저희 광명실상회에서 발간한 "부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가꿈시다"라는 책을 읽어보시고, 새로운 마음을 내시어 "광명실상 성취기도"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본래 청정법신 이므로 "생명의 실상"으로 진리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행복·변영·희망·건강·성공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며 죄와 병과 재난과 불행은 악몽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불자님께서 저희 "광명실상회"에서 펼치고 있는 "광명실상 성취기도" 수행을 지도 받으시고, 실행하시는 삶 속에서 진리의 광명이 항상 충만하게 나누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 광명실상회

전화 (031) 257 - 356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486-14, 6/4  
회장 진 관 법사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  
전화 (051) 864 - 3740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 3동 581 (한신상가 5동 501호)  
원장 각 광 합장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계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원공 구조에 날감으로 풀림이 허다한 등제작이 「한번의 공경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만에 완성.
-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삼중 방수방식 및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 분위기 조성」에 활용
-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해 더욱 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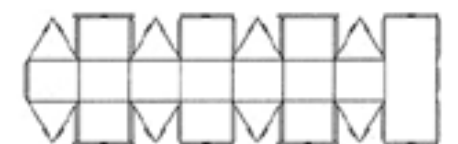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운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 팔공회의 고종을 두대루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불축의 의미와 흥성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한 다양한 유동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공조 및 인쇄결구지 합치 방식)



## 현우기획

전화: (02) 467-1513 핸드폰: (016) 552-9360

\* 이 광고를 보시고 저의에게 오시거나, 위 사진을 올려서 광명실상회에 편지로 보내 주시면 책을 무료로 보냅니다 해 드리겠습니다.